"기초교리 배우며 초발심 다질터"

총불회 전충렬 초대회장



"초심자가 많은 불자회인 만큼, 우선 기초교리를 중심으로 법문을 듣고 개인별로 신행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8일 서울 법련사 법당에서 발족 이후 첫 정기법회를 봉행한 국무총리실 불자회(이하 총불회) 초대회장 전충렬 씨(총리실 심사평가과장).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불자회에 동참한 도반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신행 현장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회를 운영하겠다"는 전 씨는 "지난해 가을부터 준비를 시작해 7월 7일 총불회를 발족시킬 수 있었지만, 바쁜 일과로 회원 모집에 전력을 다하지 못해 아쉽다"며 "총리실 내 불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불자회에 가입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총리실 내 직원은 300여 명 정도인데, 이중 총불회에 참여한 회원은 25명이다.

전 씨는 "다른 중앙 부처 불자회와 비교에 총불회 발족은 늦은 감이 있다"며 "총불회가 활성화 돼 정상궤도에 올라 공무원불자연합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7명의 회원들은 첫 정기법회를 봉행한 데 이어 '절 올리는 법' 등 사찰 예절 교육을 실시했다. 오종욱 기자

공무원불자연합회 홈페이지 만든다

10월 창립 1주년때 오픈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욱-섭, 이하 공불련)가 통신망에 보금자리를 튼다.

공불련은 9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제작해 10월 6일 해인사에서 열리는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기점으로 오픈한다고 2일 밝혔다.

공불련에 따르면 8개 기본 메뉴로 구성될 홈페이지는 큰스님 '법문', 사찰예절과 교리를 배우는 '불교이해하기', 각 기관별 불자회를 소개하는 '공무원불자현황'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불교계 신행단체에서 개설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추천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무원 불자 스스로 봉사현장에 찾아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

가상공간에도 신심 꽃폈다

하불동 11년 신행활동 엮은 '부처세상' 펴내

저녁 10시 가상공간에서 봉행되는 선(禪)법회에 동참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어렵고 딱딱하기만 한 불교 교리를 차 이야기로 풀어내는 도륜 스님(경북 영주 부석사)의 글과 수안 · 원성 스님의 그림을 검색해 열람하며 불심을 키우는 신행 현장이 화제다.

일반 불자들이 '가상공간에서도 현실과 같은 신행 활동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이, 통신 불자들은 모니터와 키보드만으로도 발심은 물론 그것을 키우기 위해 법회를 봉행하고 도반이나 스승을 만나 신심을 다지는 신행과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이텔 불교동호회(대표시솝 이성모, 이하 하불동)가 18일 발간하는 〈부처 세상〉에는, 이러한 통신 불자들의 신행 활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400여 쪽 분량으로 발간되는 〈부처 세상〉은 11년간 하불동 게시판에 올라 온 15만 여 편의 글을 엄선해 엮어, 가상공간에서 축적되고 있는 신행의 노하우를 보여주고 있다.

이중에는 홍양희(ID 유보현화) 씨가 95년 11월부터 매주 금요일에 진행한 선법회, 타종교 동호회와의 통신 대담, 소승과 대승불교 논쟁 등 일반 불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통신 불자들의 신행 활동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100회를 맞은 선법회에 하불동 대부분의 불자들이 접속했다는 뒷얘기는 통신 불자들의 신심의 깊이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또한 '장애인들도 성지순례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통신 게시판에 게재되면서 하불동 산하 소모임인 칠연회가 생겼다는 내용에서, 온(On) 라인 상에서 키운 신심이 실제적인 신행 활동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불동이라는 말 대신 '하불사(寺)'라는 애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가상공간에서의 불자들의 모임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사부대중의 청정도량이라는 의미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이텔불교동호회 칠연회가 소쩍새 마을 봉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다.

선법회 접속 법문듣고
통신논쟁 · 자비봉사행
네티즌 불심닦기 '생생'

이성모 대표시숍은 "모니터 위로 감로처럼 쏟아지는 도반들의 글을 읽을 때나, 통신 밖의 모임에서 도반들의 맑고 향기로운 얼굴을 만날 때, 가상공간에도 불보살들이 모여 살고 있음을 지난 11년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하불동은 18~19일 충북 속리산 법주사에서 제6회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부처 세상〉을 배포한다. 150여 회원들이 동참하는 이번 수계법회는 혜정 스님을 계사로 한 수계 의식 외에도 예불, 예절습의 교육, 108배, 선실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도심철도 법우회 지회 증설

회원 참여율 높게…게시판 설치도 늘려

도심철도법우회(회장 이정환)가 최근 답십리 · 잠실역 승무사무소에 지회를 설치하는 등 법우회의 조직을 정비하고 나서 주목된다. 법우회가 서울 및 경기 지역 154개 역사에서 활동하는 불교신행단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변화는 지하철 포교의 획기적인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우회가 모임의 체질을 개선키로 한 것은, 99년 창립 이래 매년 15% 정도의 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회원들이 신심을 다지며 지하철 포교에 나설 수 있게 동기를 제공하는 신행 프로그램이 부재했다는 자체적인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우회는 도심철도의 직제에 맞춰 모임의 구성을 새롭게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답십리역 승무사무소 지회, 잠실역 승무사무소 지회를 신설하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선 것.

이와 함께 10여 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도봉역과 잠실역 공중화장실에 자비의 말씀 게시판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에 나섰다.

이외에도 법우회는 고덕 · 도봉 · 방화 · 천왕 · 신내 · 모란 차량 사업소 및 수색 · 개화산 · 도봉산 · 신풍 승무 사무소에 지회 개설을 서두르고, 지회의 자체적인 법회나 신행 활동을 권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정환 회장은 "지하철 시대를 맞아 회원 불자의 의식 전환과 법우회의 재도약의 계기로 삼을 생각"이라며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법우회로 거듭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교계 첫 불교만화 동우회 창립

회장 김선아씨…포교 대중화 기대



불교만화와 불교애니메이션을 새로운 포교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교계 최초 불교만화동우회가 7월 29일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법당에서 창립됐다.

영남불교대학 학장 우학 스님, 김선아 불교만화연구소장, 김종현 신화프로덕션 감독 등 20여명의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창립법회는 김선아 불교만화연구소장을 임시 회장으로 선출하고 우학 스님과 서울 선운사 주지 태허스님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이날 창립법회와 함께 불교만화와 불교애니메이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계 최초 불교만화 세미나도 열렸다.

불교만화동우회는 매월 1회 정기모임과 수시 모임을 통해 창작 만화, 애니메이션, 만화 비평, 캐릭터 팬시 아이디어 창출, 회지 발행, 불교애니메이션 제작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053)474-0344 천미희 기자

부산경찰청 경승실 법당 개원



부산지방경찰청 경승실은 4일 부산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무궁화법당 개원 및 부처님 봉안 기념법회를 봉행(사진)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경승실장 성오스님, 경승단 총무 정여스님, 전국경승단장 상운스님 이병곤 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에서는 무궁화법당 개원의 의미와 활동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성오스님은 "경승실 무궁화법당 개원을 계기로 경찰포교가 활성화되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이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닮아 가길 바라며 경찰의 자비행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만 3천여 부산지방 경찰의 지혜를 닦는 도량이 되길 발원한 경승실과 부산지방경찰청 경불회는 불교교리 교육, 참선과 휴식 공간 제공, 신행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찰포교와 경찰불자들의 신심증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우리 모임에선

법륜교수회 하계수련



법륜불자교수회는 7월 21~22일 영주 부석사에서 제27차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 참석한 50여 회원과 그 가족들은 21일 오후 1시 30분 입재식을 시작으로 '불교와 풍수지리'를 주제로 한 경산대 성동환 교수의 특강, 부석사 주지 근일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임업硏 '임업불교 11호'

임업연구원 불교연구회는 '임업불교' 제1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불교의 좋은 점을 알려주자',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의 부촉', '이규보와 불교신앙' 등의 글과 대불(大佛)에 대한 불교연구회의 논평이 실렸다.

교정인련 백양사등 순례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부산지회는 7월 29일 백양사 및 내장사로 제41회 사찰성지순례를 실시했다.

회원 및 가족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순례에서 내장사 총무 선진스님은 "지장보살의 행을 닦고 교정불자로서 실천행에 노력해 줄 것"을 내용으로 법문했다.

게시판

알림

▲물리치료실 개원=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물리치료실을 개원, 장애자 운동 및 전기치료를 실시한다. 치료는 신청자 당 매주 3회 40분씩. (054)633-6415

강좌

▲불교기본교육=금강불교문화교육원은 초심자를 위한 제27기 불교기본교육을 개설했다. 올바른 신행생활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는 9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목요일 오후 8시에 시작해 3개월간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불교의식, 부처님 생애, 기본교리, 법회와 신행, 수행법, 불교사 등. (02)893-2700~1

▲불교수행학교=대한불교교육원은 제1기 불교수행학교 개설했다. 9월부터 4개월간 진행될 이번 수행학교는 매주 금요일 오전10시30분에 시작하는 주간반과 매주 월요일 오후 7에 시작하는 야간반으로 운영된다. 강의는 '공부하는 마음자세'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등 15개 강좌로 구성됐다. (051)466-4080.

▲성격심리학 강좌=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21일 오후 2시 복지관에서 '현대인을 위한 성격심리학', '명리학이란' 등의 강좌를 마련한다. 이번 강좌는 동양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을 바탕으로 원활한 대인 관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경불련 판매 도우미=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의 '내친구 초록이'는 물품정리 및 판매를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내친구 초록이'는 재활용 및 기증 물품을 판매하는 알뜰가게. (02)926-5616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차량운행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 내용은 무의탁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이며, 매주 첫째 셋째주 화요일 오후 3~5시 실시된다. (02)2203-3677

▲북한산성 불적답사=두레문화기행은 8~10월 매주 월요일 북한산성 불교유적 답사를 실시한다. 답사 코스는 '중성문→중흥사지→태고사'이며, 오전 10시 북한산성 매표소에서 출발한다. 참가비 1인당 2천원. (02)712-5812

▲독거노인 도우미=안양시노인복지센터는 가정봉사원을 모집한다. 봉사 내용은 독거노인을 방문해 청소, 세탁, 식사보조, 말벗 등이며, 주 1회 2시간. (031)455-0551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매주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 021596-7231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 021722-4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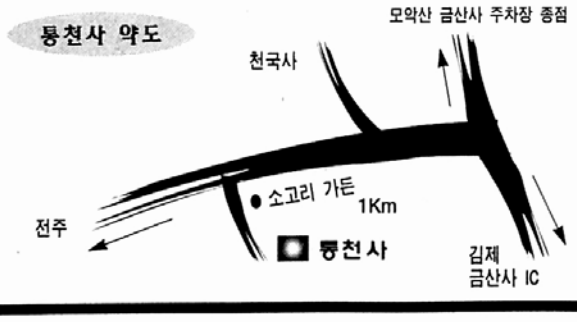
통천사 미륵도량 법당창건 불사 모연문

도시계획으로 10년전에 사찰이 철거되어 갈곳이 없어 가정집으로 전전해오다가 통천사 건립 불사를 발원한지 10년만에 인연이 닿아서 김제 모악산(금산사 쪽)수려한 산기슭에 2000평 부지에 법당과 선방 요사채 등을 짓게 되었습니다.
법당없이 부처님을 모시는 그동안 고충과 죄스러운 마음이야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의 불자들과 뜻있는 독지가들의 원력과 뜻을 모아 법당을 착공한지 3년이 다 되고 있음니다만 완성을 눈앞에 두고 두손놓고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한계에 달한 것 같아 널리 알리오니 부처님의 전법 도량인 미륵법당창건불사에 많은 신도들의 정성어린 동참으로 성근복덕을 지으시고 불자들의 정신적, 신앙적 귀의처가 되도록 불사가 하루빨리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기 2545년 8월

전북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206 통천사 주지 김삼계 합장
☎ 063)548-4332 농협구좌 527813-52-047441 김도진

통천사 약도



- 교통편
- 고속도로(호남)
  금산사 IC - 금산사 - 전주방면으로 1Km 지점
- 대중교통
  전주시내에서 모악산행(금산사행) 시내버스 승차
  종점부근에서 하차(소고리가든 앞)

性을 통한 깨달음!

新 탄트라 오쇼
성에서 초의식까지

두 권의 책과 CD로 구성된 이 세트는, 5천 년 동안 유일하게 성(性)을 영적인 성장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포용해 온, 종교적인 전통인 탄트라(Tantra, 密敎)의 수행 방법과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인간은, 성행위의 절정 속에서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
먼저, 성행위시 에고가 사라진다. 에고 없음이 창조된다. 잠시 동안, '나'는 없다. 잠시 동안,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오르가즘은 하나의 자기 소멸의 상태이다.
성의 경험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은, 잠깐 동안 시간에서 시간 없음이 창조된다. 오르가즘 속에서, 시간 감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오직 현재 순간만이 있다. 현재는 시간의 일부가 아니다. 현재는 영원이다.
인간의 성에 대한 갈망은, 여자의 몸을 향한 남자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 열정은 어떤 다른 것을 향한 것이다. '에고 없음'을, '시간 없음'을 향한 것이다. -오쇼-

부록: 파트너와 함께 하는 탄트라 CD



탄트라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이 CD는 성(性)에 명상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좋은 입문서 역할을 해 주며, 성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게 해 주는 '고대의 사랑의 과학(Tantra)'에 근거하여 오쇼의 제자들인 카비샤, 의학 박사 디얀 요기, 와두드, 알비나에 의해 만들어졌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성적인 환희의 예술(The Art of Sexual Ecstasy)>의 저자인 마르고 아난드뿐만 아니라, <New Frontiers> 잡지의 격찬을 받은 바 있는 이 명상법은 아름다운 배경 음악과 함께, 준비와 정화의 단계를 거쳐, 일상적인 방식으로는 표현되지도, 보여지지도, 그리고 느껴지지도 않았을 그런 황홀경의 에너지 상태에 이르도록 도와 준다(총 65분 : 1. 지시어와 배경 음악 32:30 / 2. 배경 음악 32:00)
* 세트 가격 18,000원



❀ '탄트라 CD'에는 설명서와 함께 자세한 수행법이 담겨 있습니다!

도서출판 황금꽃 / www.goldenflower.co.kr/ 전화 주문 02)711-4227,8 / 팩스 02)711-4229